

'한전공대 진입로 연내 착공'...나주시, 기반시설 본격 구축

총연장 643m 왕복 4차선 진입로 총 30억 투입 내년 말 완공 목표 개교 목표 달성 위해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인프라 구축 속도

정부 국정과제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상 개교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 되고 있다. 나주시는 한전공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 짓고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총연장 643m, 폭 25~28.5m, 왕복 4차선 규모로 조성하는 진입로 공사는 총 30억원을 투입해 2021년 말 완공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입로가 완공되면 공대 인근에 들어설 에너지 연구단지과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진입로는 국가지방도로 55호선(남평읍~세지면)에서 산포면 송림리를 경유하는 도로기능을 겸하게 돼 빛가람동(혁신도시) 진·출입 교통 편의 증진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와 한전은 진입로 착공에 이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통신 등 추가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는 한전공대는 6개 에너지 전공 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이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국내 대학 중 가장 공격적인 '학생 10명당 1명'을 기본으로 전체 교수 수를 100명 +α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설립비는 6300여억원에 연간 운영비는 6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총 40만㎡ 규모로 조성될 한전공대 캠퍼스는 에너지대학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캠퍼스로 나주혁신도시 부영CC 일원에 개교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조성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선제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학과 더불어 대형국가연구시설 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도 힘써 나주를 명실공히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부영CC 인근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화순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건립 대상지로 선정...내년도 국비 확보



화순군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화순군은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화순백산산업

특구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건립 추진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만7000여㎡, 지상 5층 규모

로 건립될 예정이다. 4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별도의 공동 연구동과 생산동, 기업 홍보관, 비즈니스 카페, 세미나실, 게스트 룸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생물약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 벤처기업 특화 연구, 생산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은 국내 유일의 백산산업특구로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바이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화순을 생물약산업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선정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에 이어 최상위권 성적

담양군은 전남도가 실시한 2020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반부패 의지노력도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성적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평가다. 올해 담양군은 최우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

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데 이어 최상위권 성적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청렴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공무원 행동강령 내실화를 위해 이행실태 점검 등 예방중심의 감찰, 간부공무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95%

달성,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 상부상조 청렴 컨설팅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능동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과 내실 있는 부패방지제도 추진을 통해 군민에게 부패 없고 신뢰 받는 청렴담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여성 농업인 '편의의자' 1만개 보급

농작업 부담 경감위해

장성군이 여성 농업인들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편의의자 1만개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 겨울철에도 여성 농업인들은 수확물 선별작업에 여념이 없다. 반복되는 농작업은

손목, 팔, 어깨, 허리 등의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진행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이 보급한 편의의자를 농작업 시 사용하면, 신체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자세교정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작업 시

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면 근육, 혈관, 신경 등에 무리가 가지 않아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편의의자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사용한다. 1000원을 내고 장기간 임대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1년)이 초과되면 폐기된다. 이밖에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어, 농가의 호응이 높다.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첫걸음 20여명 초청 기본조사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곡성군이 관련 업체 및 가공 농업인 등 20여명을 초청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본조사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곡성군은 지난 9월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농산물종합가공기술훈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10월부터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바에 따르면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33억 5

천만원 규모로 곡성읍 신월리 일원에 연면적 990㎡에 2층 건물로 조성된다. 1층에는 HACCP 시설 가공실이 들어서며, 2층에는 창업실습교육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에 실시설계와 건축공사가 시작되며, 2022년에 장비도입 및 HACCP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곡성군 농업현황, 농업인의 가공 수요 등을 미리 파악해 가공품목 선정 및 공정설계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그 결과 토란파이, 착즙, 건조, 분말 라인이 선정되었다. 향후 라인별, 작목별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정설계안을 만들고 실시설계에 반영해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곡성=양해영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